

Anthony J. Tomasino 박사, 예수 이전의 유대교, 세션 8, 하스몬 왕조

© 2024 Tony Tomasino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안토니 토마시노(Anthony Tomasino) 박사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8, 하스몬 왕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웅들을 떠났을 때 유다 마카베우스는 최근 전투에서 사망했고 그의 형제 요나단은 하스몬 군대의 지휘권을 잡고 반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작은 참고 사항은 헬레니즘파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알키무스(Alcimus)가 요나단이 집권한 직후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누가 그의 자리를 차지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자, 일부 학자들은 아마도 사무실이 비어 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미스터리가 됩니다.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믿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과 같은 일을 담당하여 유대 민족의 집단죄를 없애는 일을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내 생각엔 당신이 그걸 우연에 맡기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도 요나단이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는데, 이는 나에게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요나단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다면 나는 마카베오서 전체에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사무실에 있던 사람은 누구든 매우 공격적이지 않았고 기억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요나단은 기원전 161년부터 142년까지 권력을 잡았고, 그는 이 반란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Jonathan은 Mishmash시에 일종의 정부 센터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미스마스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도시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받기 위해 미슈마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일종의 부재 정부를 세웠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궁에서 일종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동안 그가 판결을 내리는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ishmash의 정부와 Jonathan의 작업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사람에게 가는 사람들보다 도움을 받기 위해 요나단에게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Maccabees,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Maccabees는 유대 전역에 수많은 요새를 세우고 셀레우코스 제국을 위해 이곳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시리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메트리우스 1세와 알렉산더 발라스라는 사람 사이에 경쟁 관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왕가의 일원이고 현재 두 사람 모두 왕족의 일원입니다. 왕좌. 발라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족과 어떤 관계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기가 많은 것 같더군요. 그는 유대인 인구 중 가장 활발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요나단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그의 호의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그를 동맹으로 삼고, 그를 가까이 두는 등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 민족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통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성직자 집안 출신이에요.

그러나 솔로몬 시대부터 대제사장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주요 가족, 즉 사독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료의 가족에게서 선택되었습니다. 사독의 대제사장

계열은 잘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독 가문과 그들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독 계통에 속하지 않은 이 하스모니아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그 전통을 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153년의 초막절은 요나단의 첫 공식 행위이다. 현재 그는 대제사로 감리하고 있다.

Balas는 계속해서 그에게 영예를 붓습니다. 그는 그를 예루살렘의 스트라티고스로 만듭니다. 그 스트라티고스는 일종의 군사 총독이다.

종교의 최고 권위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군사 최고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하스모니안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나단은 몰락했습니다.

여기 유대가 여기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곳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큰 국가가 아니지만 조나단은 여기 트랜스요르단의 일부 지역과 여기 밖의 일부 지역도 정복하고 유대 영토의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데메트리우스 2세가 기원전 145년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알렉산더 발라스의 라이벌이었습니다. Alexander Balas는 죽었고 Demetrius는 Alexander Balas를 지원했다는 답을 얻기 위해 Jonathan을 시리아로 소환합니다. 글쎄, 그 이상하고 기발한 운명의 왜곡 중 하나에서 결국 일어나는 일은 데메트리우스가 결국 유대 사람들에게 영토를 양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숲으로 끌려가는 대신 시리아로 떠나기 전보다 더 큰 힘을 갖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시리아 정치가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시리아 제국의 왕좌에 대한 또 다른 경쟁자인 셀레우코스 왕조가 일어납니다. 트리폰이라는 사람. 트리폰은 알렉산더 발라스(Alexander Balas)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왕족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는 장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ryphon은 처음에 Jonathan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소 평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Alexander Balas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이전에 관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Alexander Ballas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뭐, 좋은 행동이었던 것 같지만, 트리폰은 조나단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나단이 자신을 반대하고 있으며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북쪽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라는 도시로 유인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더 큰 영예를 안겨주겠다고 가장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형제들 중 몇몇은 이 사실을 매우 의심했습니다. 그는 가지 말라고 일종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갔습니다. 어쨌든요.

뭐가 잘못될 수 있나요? 글썄요, 잘못될 수 있는 것은 그가 포로로 잡혀서 처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 시몬이 그 자리를 대신해야 합니다. 요나단이 트리폰에 의해 살해되자, 셀레우코스 왕조가 아닌 유대인들에 의해 시몬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트리폰은 다시 왕국을 탈취하려고 합니다. 글썄요, 지역이라고 말해야겠네요. 지금은 왕국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Simon은 Demetrius II와 동맹을 맺지만 더 많은 양보를 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과세에서 면제된다면 트리폰에 대항하여 데메트리우스 2세를 기꺼이 도울 것입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양보입니다.

그래서 Demetrius II는 동의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멍에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 날은 마카베오서의 연대기에서 기념되고 유대인 역사에서도 사랑스럽게 기억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외국 세력에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본질적으로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동안 자율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유대 영역을 확장합니다.

그는 거라사를 정복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큰 요새인 에이커를 점령합니다. 그는 에이커에서 그리스 군대를 추방하고 그 지역의 다른 여러 요새를 파괴했습니다. 사이먼은 그 과정에서 많은 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기원전 140년에 그들은 대총회라고 부르는데, 그곳에서 그는 대제사장이자 모든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140년 또는 139년, 그의 후원자인 데메트리우스는 다시 파르티아인들에게 포로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시몬은 왕좌를 위해 안티오코스 7세를 지지합니다.

안티오코스 7세는 시몬에게 자신이 정복한 영토 중 일부를 해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무력으로 그들을 점령하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시몬은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시몬과 유대인 군대는 그리스 군대를 격파하고 그들의 영토를 계속 장악했습니다.

사이먼에게 일어나는 일은 명예나 그와 관련된 어떤 것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게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름의 사위가 있습니다. 그의 사위가 그를 연회에 초대합니다.

시몬은 잔치에 나타나다가 자기 사위에게 살해당한다. 그의 사위는 그가 예루살렘을 장악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135년에 일어납니다.

자, 즉시 우리는 대제사장직과 예루살렘의 통제권을 놓고 약간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히르카누스(John Hyrcanus)가 이제 예루살렘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John Hyrcanus의 통치가 좋은 출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시작 부분은 정말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예루살렘으로 탈출하여 시몬의 아내인 요한 히르카누스의 어머니를 포로로 잡는다. 히르카누스와 그의 군대가 신전 단지를 뚫고 다시

신전을 장악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 때마다, 시몬은 히르카누스의 어머니를 쫓아내고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결국 그는 실제로 그녀를 죽인 후 탈출하여 이집트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John Hyrcanus와 그의 통치에 대한 첫 번째 검은 눈이 있습니다. 그는 기원전 135년에 안티오코스 7세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그리스군이 그들을 동맹국들과 단절시켰기 때문에 요한 히르카누스는 이전 확장팩에서 정복했던 많은 재산과 땅을 포기하는 등 막대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안티오코스 7세는 불멸의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128년, 안티오코스 7세가 전투에서 사망합니다. 그의 뒤를 이은 데메트리우스 2세는 왕좌를 확보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그래서 그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자 John Hyrcanus는 자신의 손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의 권력과 권위를 되찾고 그가 그리스인들에게 양도해야 했던 땅의 일부를 다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북쪽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도시로 전환한 도시인 사마리아를 차지합니다. 남쪽에서는 이두매 땅을 정복합니다.

이두메아,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에돔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아랍 민족들의 움직임으로 인해 서쪽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돔인들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들은 유대 남쪽에 자신들만의 작은 왕국을 형성했습니다.

그 왕국은 이두매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글썄, John Hyrcanus는 이두메아를 정복했고, 그는 이두메아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시키지 않으면 죽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트랜스요르단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히르카누스는 자신의 성공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다윗왕의 무덤을 약탈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오늘날 다윗왕의 무덤으로 전해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것은 그들이 헬라인과의 전쟁으로 인해 너무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돈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윗의 무덤이 발견되고 그 안에 재물이 가득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John Hyrcanus는 그 부를 빼앗아 그의 군대를 재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외국 용병을 고용했고 이는 하스모니아 인들에게 새로운 단계였습니다.

지금까지 하스몬 왕조는 조국, 국가, 명예,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제 그의 군대에는 돈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항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대는 아닙니다.

그가 행한 또 다른 조치는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성전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제 이곳은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심산에 있던 사마리아 성전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수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 나쁜 피를 흘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왜 신약성서에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거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양방향으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두매인들에게는 이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전체 반란은 그리스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에게 종교를 포기하고 그리스인이 되어 본질적으로 그리스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요한 히르카누스(John Hyrcanus)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두매 사람들에게 종교를 포기하고 유대인이 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의 아이러니를 궁금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그들을 물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매인들은, 음,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구약성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두매인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두매인의 피가 나쁜 이유 중 하나는 에돔인이 큰 노예 상인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 중 유대인의 친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바벨론에게 약탈당하자 에돔 사람들은 포로들을 사서 노예로 팔려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선지자들의 책에서는 에돔 땅이 언젠가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지에 대해 매우 격렬하게 이야기합니다. 글썄요, 아마도 John Hyrcanus는 자신이 그 심판을 집행하고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여전히 아이러니가 가득할 것입니다. John Hyrcanus의 말년에 그는 실제로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리아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음모로 인해 Hyrcanus에 대해 어떤 종류의 결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느라 너무 바빠서 이 시점에서는 John Hyrcanus와 싸울 수 없었습니다. 히르카누스는 사마리아를 정복했고, 내가 이미 언급했듯이 그 곳을 땅에 세웠는데, 이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도시를 건설하고 그곳에 그리스인들이 거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꽤 인상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John Hyrcanus는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사한 하스모니아인 중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놀랍게도 기원전 104년에 노년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제 그는 죽기 전에 그의 미망인을 그의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리스토불루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제 아리스토불루스는 오랫동안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원전 104년부터 103년까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번째 행동에서 그가 대제사장직을 맡은 후에는 분명히 요한 히르카누스의 미망인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리스토불루스(Aristobulus)가 대제사장직을 맡게 되지만 그는 전체를 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자기 어머니를 감옥에 가두었고, 자기 형제들을 감옥에 가두어 왕위에 오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감옥에서 굶어 죽도록 내버려둔다. 그의 형제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작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그에 대한 주목할만한

점 중 하나는 그가 하스모니아 왕조 중 최초로 자신을 왕으로 선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까이에 안티고누스라는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티고누스는 다른 모든 형제들이 감옥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동안 자유롭게 지내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실의 일원에게 속아 안티고누스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방식은 누구든지 무장한 채 궁전에 들어오면 즉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키고 경비병들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생각은 그들이 아리스토틔루스에 대항할 음모를 꾸미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틔루스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을 만큼 편집증적인 과대망상증 환자였습니다.

글쎄요, 같은 신하가 형제 안티고누스에게 멋진 갑옷과 멋진 새 검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을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지 아십니까? 네 동생이 이걸 정말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그래서 안티고누스는 갑옷과 칼을 들고 궁전으로 행진했고, 그는 즉시 경비병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틔루스는 후회와 슬픔에 사로잡혀 과음에 빠졌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갈릴리를 정복하고 그것을 왕국에 추가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스모니아 왕조의 첫 번째 왕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살인 행위로 시작하여 술취한, 음,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기원전 103년의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것이 아리스토틔루스가 남긴 왕국이다. 이쯤 되었을 때보다 많이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금 작은 요정이군요. 이제 이 지역까지 올라왔습니다. 트랜스요르단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가서 배를 보낼 수 있는 멋진 항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스모니아 왕국에 추가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통치했던 왕국만큼 큰 왕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Aristobulus가 죽은 후 Alexander Jannaeus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는 오랫동안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Alexander Janius에 대해 어떤 좋은 점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그가 왕국을 더욱 확장했다는 사실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리스토틀루스의 형제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아리스토틀루스의 미망인 알렉산드라 살로메(Alexandra Salome)가 그와 결혼했고 그는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시도한 일은 갈릴리에서 조금 더 북쪽 해안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Ptolemaeus) 도시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멋지고 멋진 해안 도시를 원했습니다. 그는 프톨레마이오스를 정복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 군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 의해 압도당했습니다. Alexander Jannaeus에게는 다행스럽게도 Alexandra Salome은 이미 Cleopatra III를 포함하여 강력한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3세는 이집트 군대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하여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로부터 예루살렘을 해방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토에 유대 왕국을 추가할지 여부를 잠시 고민했고,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반항적인 신민보다는 북부 국경에 충성스러운 동맹을 두는 것이 더 낫다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집트로 돌아갔고, 알렉산더 야니우스는 고향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왕국과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이테리아 및 기타 여러 지역을 정복하여 왕국을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확장했으며, 아마도 솔로몬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음, 그 사람, 자, 여기 지도를 볼까요? 여기까지, 프톨레마이오스 는 여기 이 지역에 있고, 여기 아래까지, 이 시점에서 정말 상당히 강력하고 상당히 강력한 왕국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성취한 일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Alexander Janius 동료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국내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그는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이 하스모니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John Hyrcanus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랍비들은 그의 통치 시절을 되돌아볼 때 John Hyrcanus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어, John Hyrcanus가 몇몇 바리새인들을 후원하고 파티를 열었을 때, 그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음, 당신은 대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Zanuck 계통의 누군가임에 틀림없어요.

그리고 John Hyrcanus는 거절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리새인과 하스몬파 사이에 긴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들과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야니우스(Alexander Janius)의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술을 많이 마시고 여러 면에서 다소 부도덕한 사람으로 알려졌던 초막절에 기록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초막절에 사람들이 손에 유자 열매와 룰라브 나무를 갖게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 야니우스가 초막절을 주재하기 위해 예복을 입고 행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유자를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에게 군중을 공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대제사장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글쎄, 그들은 일종의 자극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기원전 88년에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직을 사칭하는 이 불경건한 자에 대해 이제 질렸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래를 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Solution Empire의 지도자였던 Demetrius III Eucharist와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들은 데메드리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들의 사람을 대제사장직에 앉히고 이 사람들을 왕위에서 폐위시키기 위해 와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확실히, 다윗 계통의 누군가가 아닌 누군가가 왕이 된다는 생각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불쾌했습니다.

글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데메트리우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군하기 시작했을 때 알렉산더 야니우스가 크게 기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시민들은 그리스 군대가 자신들의 도시를 침공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실제로 야니우스를 방어하기 위해 봉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 군대와 싸웠습니다.

글쎄, Jannaeus는 바리새인의 모든 지도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알렉산더 야니우스(Alexander Janius)에 의해 예루살렘 성 한복판에서 800명의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궁전 현관 중 하나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모든 것을 멋진 경치로 보았습니다. 그는 그의 첩들과 매춘부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분은 그들의 가족을 끌어내고 그들의 가족도 학살하게 하셨다는 것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그는 기원전 76년에 사망했다. 그리고 그의 형과 마찬가지로 그도 술을 마셔 죽었습니다.

따라서 그가 죽은 후에 우리는 알렉산드라 살로메가 이제 예루살렘의 지배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대중적인 찬사였습니다. 알렉산드라 살로메(Alexandra Salome)는 남편의 불륜의 희생자로 여겨지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대 정치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Alexander Jannaeus가 그녀를 대했던 방식 때문에 매우 인기 있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유대의 여왕의 역할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일종의 아이러니한 운명의 반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지막으로 여왕을 가졌을 때, 그것은 그다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달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꽤 잘 작동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아리스토틀로스과 야니우스의 미망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달라는 기원전 841년에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인기 있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알렉산드라 살로메는 매우 인기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얀네오의 정책을 뒤집고, 사두개인들을 편애하는 대신 바리새인들에게 화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공직을 많이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만약 당신이 사두개파 사람이었다면 이 모든 것에 오히려 기분이 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그녀의 통치 기간 동안 공직에서 일종의 금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모든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영웅이자 조상과 같은 존재로 여겼던 후기 랍비들에 따르면,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은 황금시대이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중요한 군사적 정복도 하지 않았지만 흥미롭게도 어떤 영토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그녀의 통치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평화와 안전을 누렸으며, 추문도 어느 정도 없었는데, 이는 한동안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Alexandra Salome이 세상을 떠난 후 실제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보세요, 현재 그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인 헤라클리우스 2세는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었고, 알렉산드라는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그녀의 다른 아들인 아리스토틀루스 2세(Aristobulus II)는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임종을 맞이하자 아리스토틀루스는 움직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직을 맡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그의 형제를 포로로 보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하스몬 왕조의 붕괴를 가져올 갈등의 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강의에서 그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은 안토니 토마시노(Anthony Tomasino) 박사와 예수님 이전의 유대교에 대한 그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세션 8, 하스몬 왕조입니다.